

영광군, 2024 불갑산 해맞이 행사 개최

추진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회의 개최
재능기부 공연·떡국 나눔 등 행사 다채



영광군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2024년 1월 1일 영광의 대표 명산인 불갑산에서

서 '2024 불갑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2월 14일 영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 불갑산 해맞이 행사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위기의 전염병이 지나고 군민의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신년 새해맞이 행사로, 재능기부 공연, 희망 전달,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함께 하는 떡국 나눔 등 희망찬 새해를 여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024 불갑산 해맞이 행사」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조와 행사장에는 안전요원, 교통안전 관리요원 배치 및 의료지원 부스 운영 등으로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2024 불갑산 해맞이 행사를 통해 군민이 화합하고 청룡의 기운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영광이 되기를 기원하며, 안전한 가운데서 불갑산의 일출을 군민 모두가 감상하고 즐기는 해맞이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이용가치 UP

무안군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거쳐 경계를 결정한다.

무안군은 2022년도 몽탄달산1, 망운송현1, 해제학송1, 장재향어촌 뉴딜지구(4개지구, 1,521필지, 1,302,434.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지혜 부장판사)를 개최하고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결과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계 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총 7개지구로, 1차 사업지구인 몽탄달산1, 망운송현1, 해제학송1, 운남하묘지구와 2차사업지구인 일로감돈1, 몽탄봉명달산, 장재향어촌뉴딜지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무안군은 추진중인 2022년도 사업지구 운남하묘, 일로감돈1, 몽탄봉명달산지구(3개지구, 6,411필지, 1,187,924㎡)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계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더불어 2023년 사업지구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지구(4개지구, 5,019필지, 4,715,354㎡)에 대해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적확정에정조서를 통지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 상정된 4개 사업지구는 몽탄달산1, 망운송현1, 해제학송1, 장재향어촌뉴딜지구로 그동안 토지의 점유현황과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로 지적측량민원이 빈번한 지역과 어촌뉴딜사업지구 지역을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진행했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토지소유자 동의 및 사업지구 지정을 거쳐 토지현황조사와 지적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 및 의견수렴을

무안=이기성기자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내년 1월 공식 출범

초대 이사장에 김형진 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선임

신안군의 (재)신재생에너지재단이 전국 군단위로서는 최초로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취직, 정관 심의 등으로 총 5건을 심의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형진 전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신안군은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중소연회장에서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재단은 서류 등록과 법인 설립 신고를 거쳐 2024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22년 6월 신재생에너지재단 기본 설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타당성 검토용역 도중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개정되면서 다소 늦어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단일구역 최대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연금이 100억을 돌파한 지금,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이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재단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은 신안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안=이명주기자

4,000만 원 지원받고 영암에서 식당·빵집·공방 차려볼까?

영암군, '귀촌 우수 창업 지원사업' 홍보 나서...사전 교육 이수해야

귀촌 창업으로 재능을 살리고, 지역경제 생태계 다양화에 이바지할 기회가 열렸다. 영암군이 '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에 앞서 교육 이수 홍보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의 '2024년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로 이뤄진 것. 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군은, 1곳당 최대 4,000만 원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한 귀촌

세대 8곳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한다. 특히, 영암군은 다른 귀농 지원정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귀촌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서 식당·빵집·공방·특산품가게 등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창업할 세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양한 기술·재능을 가진 귀촌인이, 지역경제 생태계를 다채롭게 가꾸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읍·면을 제외한 도시의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귀촌 희망인, 영암 귀촌인 중 5년이 넘지 않은 세대주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귀촌인은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지자체나 '창업에듀' '혁신창업스쿨' 등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일자리 교육 38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이중 온라인 교육은 최대 15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영암군의 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는 내년 1월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전남도 주관 2023 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 '꽤저'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43건 아이디어 중앙부처 건의

함평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3년 규제개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건의 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현장 중심 지방규제 운영 등 6개 분야, 9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6개 시·군을 선정했다.

함평군은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선제적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으며, 43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답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규제개혁 워크숍을 실시해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와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발히 운영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